

단통법 시행령 개정 ‘갑론을박’

“지원금 경쟁 확대” vs “시장 불균형 초래”

단통법에 예외기준 신설 추진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통신사 자율 보조금 책정 가능
단말기 구입비 절감 기대

이미 포화된 시장 효과 미지수
알뜰폰 위축 등 불균형 우려도

정부가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이미 이통3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와 함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의 예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요금구간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통신사가 가입 유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들이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자사로 가져오는 번호이동 관련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통통신위원회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에 보조금을 많이 실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입자의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가 위약금을 대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입자들은 통신사와 체결한 약정기간이 끝난 후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에 나섰다. 약정기간 내 번호를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왔다.

하지만 경쟁 통신사가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면 가입자는 통신사를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위약금 대납을 통한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업계는 더 이상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

지면서 통신 3사 과점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과점 체제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통신사들은 예전만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도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마다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100%에 육박하면서 통신 서비스 시장은 포화된 상태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촉발된다고 해도,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또 알뜰폰 시장의 위축으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와의 위약금 대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가입자들이 이통 3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지원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들은 부담이 덜한 이통 3사로 쏠릴 수 있다”며 “최근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확대된다면 알뜰폰 업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오션

VLCC 2척 수주 3420억 규모 계약

한화오션이 3년만에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2척을 3420억원에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6년만의 최고다. 한화오션이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수주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지속적인 고수익 제품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들 선박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6년 상/하반기 각각 1척씩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 선박은 한화오션이 개발한 각종 연료 저감 장치와 최적화된 선형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원유운반선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차별화된 VLCC 기술력과 건조 경험 그리고 선도적 친환경기술 적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실트론

7200억 조건부 대출 美 에너지부 승인

SK실트론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7200억원에 대한 조건부 대출 승인을 받았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22일(현지시간) SK실트론CSS에 5억44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대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의 조건부 대출은 ‘ATVM’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첨단 기술 차량, 부품 및 연비 개선을 위한 각종 재료 등의 제조를 지원한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이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한다. 미국 미시간주 베이스티에 2개의 공장이 있다.

미 에너지부는 SK실트론CSS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용 SiC 웨이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출 승인을 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품질 SiC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미 에너지부는 베이스티 시설이 글로벌 상위 5개 SiC 웨이퍼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200개의 고임금 일자리와 200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4배 이상 증가해 450만 대의 전기차 운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고령화 시대’ ICT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관심 쏙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산업 급성장
삼성전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선보인 인허가·규제, 기술 육성 걸림돌

전세계적 추세가 된 고령화와 팬데믹을 기점으로 시작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첨단 ICT 기술을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황을 부르고 있다.

UN에 따르면 2022년 11월 세계 총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지만 증가율은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까지 퍼지는 저출생 현상과 위생·의료기술로 평균수명 때문이다. 긴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는 수요와 팬데믹 이후 불거진 건강에 대한 관심에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래없는 저출생 현상과 고령화 사회를 맞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업체가 참가한 덕에 하드웨어 기기는 물론 센서 등 첨단 기술까지 함께 발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과거 환자와 초고령 인구 등 사후 케어가 필요한 대상에서 팬데믹을 기점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화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맞았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착용한 채 잠든 사람의 모습. 삼성전자는 FDA로부터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수면 무호흡 기능 측정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다. PWC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520억 달러(182조원)로 2027년 5090억 달러(610조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024에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실물을 처음 공개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은 반지 안쪽에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해 사용자의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운동, 수면보조를 돕는 웨어러블 기기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2012년 갤럭시를 통해 삼성헬스를 낸 후 2018년 갤럭시

시 위치를 2019년 갤럭시 핏을 출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하는 다양한 객관적 수치 요소를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인 삼성헬스를 통해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22일에도 피트니스 밴드 신제품 ‘갤럭시 핏3’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달 1일 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해 실시간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출시했다. 파스타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센서로 혈당 정보를 수집하고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운동·복약 등 주요 변수를 분석한다.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CGM) 센서와 애플리케이션 ‘파스타’가 한 세트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세운 전문 자회사다. 올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벤처 스타트업 업체도 일찌감치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최근 건강관리 앱 파프리카케어와 바이오기업 세레스에프엔디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사업 확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뒷받침도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일상적 관리를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더욱 투자 개발이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료개혁 주제로 진행한 8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우리의 의료개혁도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 평가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국내 첫 디지털치료제 ‘숨즈’는 지난 1월에서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첫 처방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치료제와 플랫폼에 대한 신중하고 엄정한 대응은 이해하지만 신기술이 자리 잡을 시간조차 뺏을 만큼 느린 인허가와 규제 폐쇄 논의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큰 벽”이라며 “삼성의 갤럭시워치 또한 5에 이르러서야 식약처로부터 의료제품 허가가 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